

Dušan Barok & Monoskop

2004년 설립 / 암스테르담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평오브제, 비디오, 디지털 액자, 금속, 목재 650x550x240cm 2018

기술계에
기획자,
이라는
통의
화했다.
부드러운
환경을

보기-만들기 두산 바록은 모노스콕의 창립 편집자이다. 모노스콕(www.monoskop.org)은 아방가르드 예술과 미디어, 인문학 연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전시 도서관)은 미술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기록하는 전통적 매체인 카탈로그의 가능성을 동시대의 맥락에 맞게 탐색하는 프로젝트이다. 모노스콕은 이번 예술가와 디자이너, 큐레이터와 시인, 연구자, 출판 편집자 등을 다수 초청했다. 4명의 큐레이터와 여러 협업자가 함께 '좋은 삶'을 위한 아젠다를 조직한다는 카탈로그의 형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타이틀과 사물의 이름, 저자와 날짜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두었다. 그 결과가 또 다른 카탈로그로만 귀결됐다면, (전시 도서관)은 오히려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함께 전시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폭넓게 끌어안는다. 참여자들의 미술을 어떻게 소장하고 감상하며 함께 나눌 것인가라는 본질적 고민이 포개졌다. 사각의 철제 프레임과 나무 판으로 구축한 구조물은 참여자들의 결과물을 전시자, 도서관이며, 관람객의 모임과 토론을 위한 플랫폼이다. (K)

Art

Korea
Art
Week



아트인컬처
October 2018

Special Feature /
작가가 말하는 작가
백남준에서 최하늘까지
11쌍의 별별 랑데부

Special Artist /
유희영, 정신의 창

Biennale Report /
베스트 오브 베스트 27
동시대미술 가로지르기

Artist Inside /
이영조, 유선공주의 꿈